

광주 대형마트 美 쇠고기 다시 판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27일부터

시민단체·축산농가 강력 반발 예상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사가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 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경우 음식점 등에 본격적으로 다량 유입 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와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 마트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사가 27일부터 자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형 마트들도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행돼 판매가 중단된 이후 13개월 만이다.

대형 마트들은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서민들의 소비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자유로운 구매권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더 이상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판매 배경을 밝혔다.

광주지역 대형 마트들은 본사에서

27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는 입장만 전해 왔을 뿐 판매 부위와 가격,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살코기는 물론 LA갈비 등 빼놓을 부위까지 거의 전부위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대형 마트와 수입업체간 협상이 끝나야 되겠지만 폐지기보다는 비싸고 호주산 쇠고기보다는 저렴한 선에서 결정될 것을 보고있다.

냉동육 척 아이풀(100g)은 1천400~1천500원선, LA갈비(100g)는 2천400원선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대형 마트에서 이뤄지면 음식점 등 일반 소매점으로까지 판매가 확산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체인 '에이미트' 박창규 대표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4개 대리점을 통해 하루 평균 200kg가량을 팔고 있다"며 "점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대형 마트가 가세하면 미국산 쇠고기に対する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대형 마트 다음에는 통상 음식점으로 소비처가 확대된다"면서 "우리 매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음식점에서 사가는 물량이 적지만 앞으로는 도매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전면화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 소호명가 1호점
광주은행 '향복' 선정

광주은행은 24일 서울 소호명가 1호점을 선정, 현관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복리호텔 전문점인 '향복'을 서울지역 소호명가(所湖名家) 1호점으로 선정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달 광주(창덕집)와 전남(보성 대단다집, 보성녹차 영종합법인)을 포함, 모두 세 지역에 총 4곳의 소호명가를 선정했다.

광주은행은 브랜드 인지도와 전통성을 토대로 타월한 영업력을 발휘해 유망기업으로 평가받는 소호(SOH)기업에 대해 영어표기인 소호와 말을 같으면서 호남의 명소(가)를 의미하는 '소호명가'로 지정, 각종 금융 혜택을 주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부, 주택대출 지금 보증 검토

주택금융공서...보증기금 5천억 확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담보 주택의 가격 하락 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만기 연장 때 은행에 지급 보증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보 대출이 이뤄진 주택의

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 보증이 선제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급 보증 재원에 대해 "24조 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은 1%에 불과해 3조 원이면 된다"며 "당장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천억 원 정도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수완 국민임대 1천여가구 공급

주공 3단지...전세값 상승 완화 기대

광주 수완지구에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돼 광주 지역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에 숨통을 빠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임대

공급으로 집값 상승률을 활짝 올고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률이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수완지구 주공3단지 국민임대 1천67가구가 26일부터 이틀간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운남주공 5·6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1천세대 이상이 동시에 입대돼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임대는 입주 후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전세난 개선에도 한 몫을 할 전망이다. 광주는 최근 2~3년 새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제철-외주사 공동 추진

'혁신활동' 성과 대만족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4일 백운아트홀에서 '2008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올해 한해 동안 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이하 외주사) 직원들이 함께 추진해온 혁신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하남석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외주파트너사 대표와 임직원 등 1천8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2008년 제철소 및 외주사 혁신활동이 모자모, 혁신 우수과제 및 사례발표, 우수학습 동아리

등의 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제철소는 앞으로도 각 부서별 진행된 다양한 혁신의 성과와 흐름을 공유하는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해 전체 임직원의 혁신 분위기 쇄신과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韓銀-전남大 산학교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4일 전남대 경영대 교수회의실에서 전남대 경영대와 산학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각종 경제 현황과 정책자료의 수집, 작성, DB 구축 등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웹사이트 '기아버즈'

기아차 직원들이 지난해 9월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글로벌 비즈니스 블로그 '기아버즈'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비자출·고용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

韓銀 11월 소비자동향

소비자들은 앞으로 소비자동과 고용이 환란후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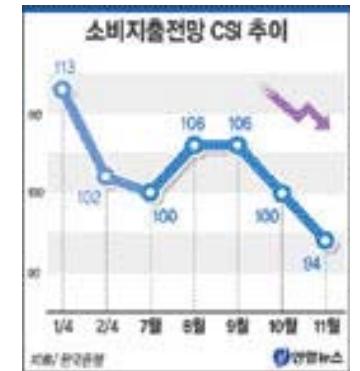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2천200개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소비자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비자자동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4로 전월의 100에 비해 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99년 1분기(9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비자동전망 CSI는 102에서 92로 10포인트, 400만원대는 100에서 93으로 7포인트 각각 떨어지는 등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항목별로는 여행비가 71에서 64로, 교양·오픽·문화비가 84에서 77로 각각 7포인트 내렸다. 외식비와 교통·통신비도 각각 6포인트의 하락세를 보였다.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동을 높리겠다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이하이면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취업기회전망 CSI는 11월에 50으로 전월의 60에 비해 10포인트 급락해 98년 4분기의 33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급여수준전망 CSI는 92로 전월의 112에 비해 20포인트 떨어졌고 물가수준전망 CSI는 140에서 133으로 7포인트 내렸다.

/연합뉴스

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봉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아파트

소재지	면적(m²)	층	면적(m²)	감정가	최저가	비고
본동동 현진애비빌	7층	59	3억2천	29240만		
봉정동	중층	31	9천300만	6천500만		
운암동	우미	9층	20	4천500만	3천150만	
화정동 아·편한세상	16층	87	4억8000만	3억4300만		
마곡동 서강	12층	18	4천700만	3천280만		
중화동 풍화동	3층	30	1억7000만	1억1900만		
군동동 리인동산	2층	42	1억4000만	9천800만		
생활동 현대	5층	24	8000만	5천250만		
주체동 경남	11층	24	7천500만	5천150만		
동부동 동부센트럴	17층	53	2억5000만	1억9500만		
봉선동 한국이달리움	1층	39	4억1000만	2억8700만		
백운동 대우백운스토어	9층	33	9천600만	6천720만		

▶근린시설

소재지	대/전(m²)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우신동 188/193	10억6015만	5억366만	4억310만	구름사
임대동 362/993	41억6076만	28억5009만	26억4000만	근린시설
봉정동 137/219	6억1999만	3억4719만	3억4719만	근린시설
광진동 136/468	13억3525만	5억8819만	5억8819만	근린시설
신민동 213/899	22억686만	8억309만	8억309만	근린시설
신민동 90/387	9억337만	5억589만	5억589만	근린시설
대안동 287/854	23억322만	10억6832만	10억6832만	근린시설
오치동 49/51	1억6114만	1억280만	1억280만	근린시설

▶오피스

소재지	대/전(m²)	감정가	최저가	비고
</tbl_header